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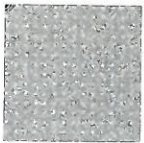
시 주보

제246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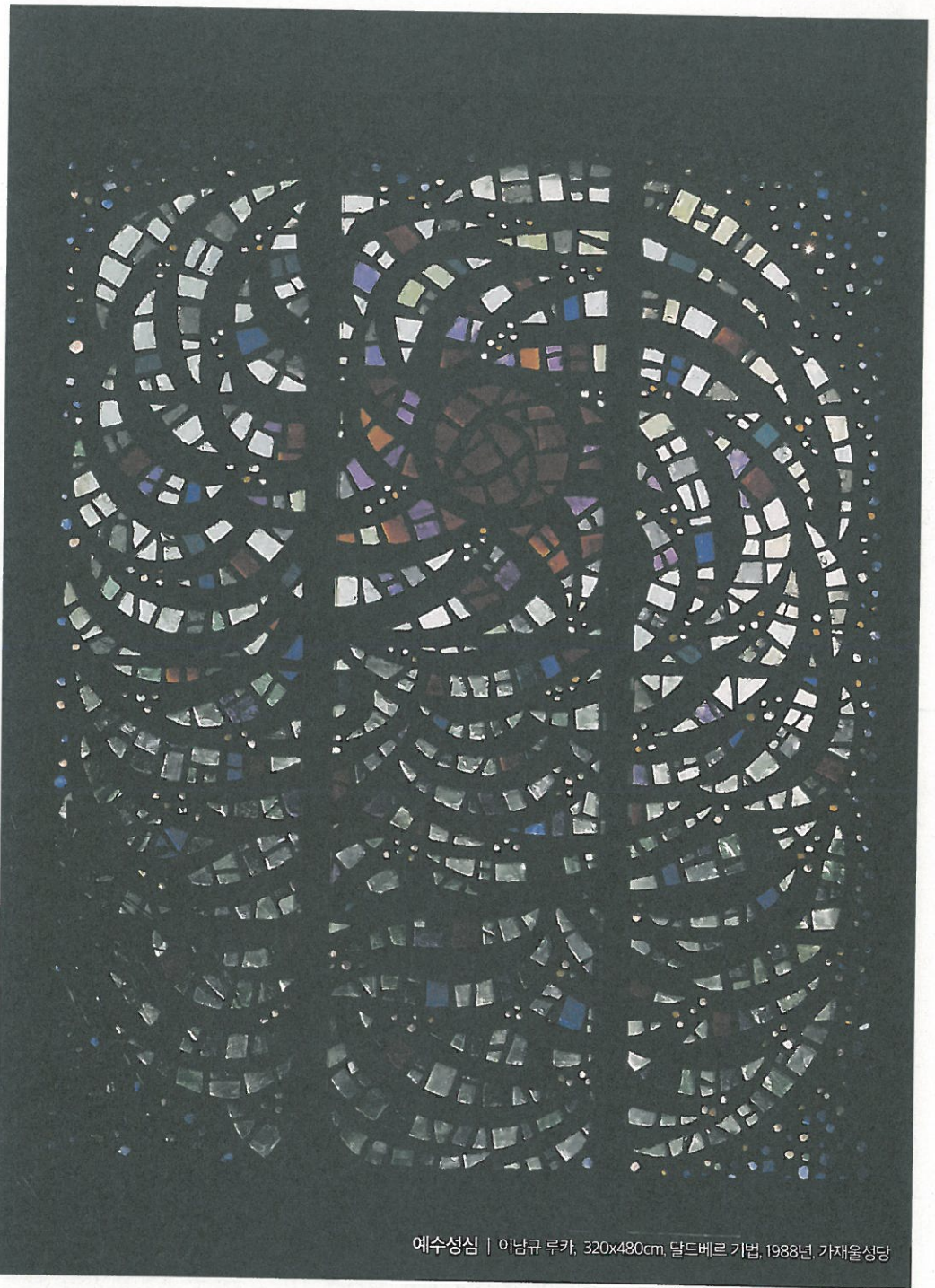
2023년 10월 1일(가해)

연중 제26주일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발행인 정순택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seoul_jubo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xhGxjBxb
유튜브 www.youtube.com/@catholictube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예수성심 | 아남규 루카, 320x480cm, 달드베르 기법, 1988년, 가재울성당

입당송 | 다니 3,29.30.31.43.42 참조

주님,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짓고 당신 계명을 따르지 않았기에, 당신은 진실한 판결에 따라 저희에게 그 모든 것을 하셨나이다.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저희에게 크신 자비를 베푸소서.

제1독서 | 예제 18,25-28

화답송 | 시편 25(24),4-5.6-7.8-9(© 6L 참조)

◎ 주님, 당신의 자비 기억하소서.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나님, 날마다 당신께 바라나이다. ◎

○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제 젊은 날의 죄악과 잘못된 잇어 주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

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

○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

제2독서 | 필리 2,1-11

복음환호송 | 요한 10,27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복음 | 마태 21,28-32

영성체송 | 시편 119(118),49-50 참조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두 아들의 비유 '말로만 하는 믿음'과 '실천하는 믿음'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 서울대교구장

오늘 복음은 마태오복음 21장의 '두 아들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오늘 복음과 다음 주일(포도밭 조각인의 비유) 그리고 그 다음 주일(혼인 잔치의 비유), 연속해서 3번에 걸친 주일 복음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 곧 소위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쓴소리 섞인 가르침을 들려 줍니다. 이는 뒤이어 오는 마태오복음에서 23장의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향하여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하시며 여러 차례 크게 꾸짖으시는 가르침의 포문을 여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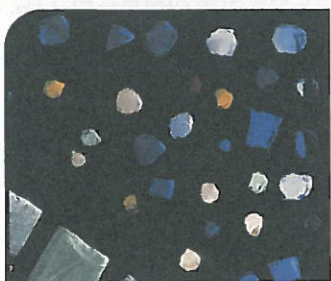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 혹은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스스로 율법을 잘 알고 실행하는 '남들과는 구분되는 사람들'(바리사이의 어원은 '구분짓다'와 관련됩니다.)이라는 자부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율법을 모르는 저 백성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요한 7,49)라고 업신여기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따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고대의 수사본 중에는 만아들과 작은 아들의 답변이 서로 뒤바뀌어 있는 수사본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만아들, 작은아들의 답변 순서가 아니라, '잘못을 뉘우치고, 결국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서는 강조하십니다. (생각을 바꾸다라는 표현은 '뉘우치다'의 뜻과 상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지시에 작은아들이 하는 대답, "가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문을 직역하면, '저는(Εγώ), 주인님(주님, κύριε)!'입니다. '저는, 주님

(Εγώ, κύριε)'이라는 표현은 사도행전 9장의 사울이 회심하는 대목에서도 나옵니다. 다마스쿠스의 하나니아스라는 제자에게 주님께서 환시 중에 나타나 그를 부르실 때, 그가 대답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예, 주님.(Εγώ, κύριε)"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할 때 '저는, 주님'이라는 표현까지 쓴 것은 우리 말 용례 상으로는 이상하지만, 말로는 아주 공손하고 순명적인 작은아들의 '겉 다르고 속 다른'(말 다르고 행동 다름) 태도를 더 극적으로 두드러져 보이게 합니다.

예수님의 오늘 비유의 가르침은, 구원이란 번지르르한 말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1독서에서도 예제키엘 예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버리고 돌아서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그는 자기 목숨을 살릴 것이다.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생각하고 그 죄악에서 돌아서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예제 18,27-28)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께서서는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말로만 "저는, 주님!" 하며 번지르르게 대답하고 말 것인지,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며 '의로움의 길'(마태 21,32), 믿음의 길을 실천하며 갈 것인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마태 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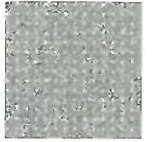


"그는 '싫습니다.'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마태 21,29)

사회의 규범과 관습에 얽매어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나 돌이켜 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걸 모습이 전부가 아니며 내면의 변화와 진정한 실천을 통한 것임을 되새깁니다. 오늘 해가 뜰 때만 해도 어둡던 스테인드글라스도 빛나는 색채를 드러내며 감동을 주고, 행동하도록 독려해주는 듯합니다.

작품
설명

박정석 미카엘 | 루크글라스



박 바오로 (가명) | 일용직 노동자

바오로라는 이름으로

저는 지나간 일을 떠올리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어리석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7살 때 고아원에 불이 나서 나와야 했고 구두 짚새, 껌팔이 등 굶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악다구니밖에 느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렵게 몇 푼 번 돈은 형들에게 빼앗기기 일쑤였고, 안 주려고 하다가 죽을 때까지 맞아 며칠을 일어나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기술이라도 배워야겠다고 생각해서 미싱 시다부터 식당 보조 등 여러 가지 일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이도 어리고 만만해 보였는지 월급도 준다고 했는데 못 받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때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 때려 치우고 미싱이고 식당이고 다 부수고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에게 잡혀서 소년원에 가게 되었고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그 이후,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돈도 조금씩 저축했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사람이 제 통장 돈을 모두 찾아서 떠나가 버린 일이 생겼습니다. 아마 저와 살면 발전과 희망이 없을 것으로 보였겠죠. 그때부터 술을 찾게 되었고 조금이라도 저에게 인상 쓰고 좋지 않은 말을 하면 다 때리고 부시곤 했고, 이후로도 교도소에 들락날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송을 오게 된 구치소에서 좋은 교도관님을 만나 상담을 하게 되었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누구 하나 저에게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나이도 많고 전과도 많은 저에게 왜 잘해주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정말 고맙더군요. 그곳에 있는 동안 어렵게 소장님에게 허락 받아 호적 정리도 하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정사목 신부님을 만나게 되었고 지금 제가 사는 '평화의 집' 쉼터로 오게 된 것입니다.

쉼터에 와서 건축 현장 일을 다니며 자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 나이가 많아 안 써주려고들 했지만, 이제는 제가 없으면 일이 안 된다며 저를 찾아주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쉼터에 와서 신부님을 졸라 '바오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과거를 누우치고 하느님을 열렬히 사랑하며 여생을 살았던 바오로 사도의 모습이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일 때문에 자주 못 가지만 일주일에 한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성당에 가서 미사에 참여합니다.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옳지 않은 일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받은 사랑을 저 역시 누군가에게 돌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봉사는 못 하고,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면 적은 돈이지만 꾸준히 필요한 곳에 후원도 하고 있습니다. 항상 힘내라 격려해 주시는 교정사목 신부님들과 직원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나이가 70살이 넘어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답게 하느님 보시기에 온당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한컷으로 보는
교회 가르침 '묵주기도'



마을의 평화, 악을 이겨낼 승리,
하늘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
극복할 힘이 여기에 있다.

-오상의 성비오

그림 | 송현철 안토니오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함께하는 국내의 지원 사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내의 가톨릭 사회복지 단체를 후원합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노숙인 야간 순회

누군가에게는 더없이 혹독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업 실패로 공장이 문을 닫았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잘 안돼서... 가족들 보기 미안해서 거리로 나왔는데,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도 없네.” 서울역 지하도 한켠, 추위로 굳어진 몸을 일으키며 말을 꺼내는 노숙인 기철(가명, 60대) 씨는 “지금쯤은 괜찮지만, 한겨울이 되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라며 동상으로 손가락, 발가락이 터지면 스키치테이프도 핏퐁 동여맨다고 말합니다. 차가운 냉기에 안 아픈 곳이 없지만 추운 몸을 녹일 수 있는 밥 한 끼, 바셀린 하나 살 수 있는 돈을 구하기 위해 헤진 옷을 추슬러 다시 거리로 나섭니다.

노숙인 순회 봉사를 하고 있는 스테파노 씨는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비바람이 심하던 겨울날, 시청 앞을 지나가다 비에 젖은 종이상자 안에 몸을 한껏 웅크린 채 떨고 있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급한 걸음에 우의 몇 벌과 빵을 사다 주고는 돌아섰지만, 그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날 이후로 이들을 돕는 활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든 하느님의 귀한 자녀인데, 거리 위에서 한 생명이 꺼져가는 모습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합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세상이지만, 우리 곁에는 여전히 한겨울 뽀뽀 얼어버린 들판처럼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차가운 거리 위 노숙인들은 한 몸 편히 누울 공간의 부재(不在)보다도 사회의 혐오 어린 시선과 차가운 냉대로 더욱 힘든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사 현장에서 일해 번 돈으로 밥은 굶지 않고 살았는데, 허리와 무릎을 다친 이후로 거리로 나오게 되었다는 영범(가명, 50대) 씨는 도움받는 것을 무척이나 미안해하십니다. 매번 감사함을 표시하고, “내가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언젠간 꼭 나보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어요.”라고 이야기 하십니다. 본인보다 더 힘들고 나이 든 노숙인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서울가톨릭복지회는 노숙인들의 동사(凍死) 방지를 위해 2001년부터 ‘동절기 노숙인 야간 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품 지원을 넘어 정서 지원과 의료 상담까지 봉사 영역을 확대해 매주 월요일마다 노숙인 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노숙인들이 늘어가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겨울, 거리의 노숙인에게 혹독한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견을 내려놓고 연민의 마음으로 함께 한다면 누군가는 더 이상 젖은 종이상자 안에서 잠을 청하지 않아도 되고,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피해 숨지 않아도 되는 삶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생명이고, 소외되지 말아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교우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거리 위 노숙인들이 이번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후원 계좌 | 우리은행 1005-004-429455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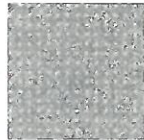
2023년 9월 30일~11월 3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노숙인 야간 순회'를 위해 쓰입니다.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s://cc.catholic.or.kr>) - '사랑의 손길'에서 지원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소득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기부 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 입금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신청_ ① 인터넷 신청: www.caritasseoul.or.kr > 후원안내 > 사랑의 손길 기부금 영수증 신청 ② 전화 신청: 02)727-2256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최현순 데레사 |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교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레위 11,44-45; 1베드 1,16) ‘너희는 거룩하니, 거룩해져라.’(골로 3,12; 1테살 4,3-7; 2테살 2,13 참조) 이것은 거룩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거룩함은 하느님의 선물이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다는 것을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교회는 흠 없이 거룩하지만 불완전하게 거룩하고,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지만 ‘불완전하게’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도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충만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선포한 <교회헌장> 5장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문헌에서 거룩함은 카리타스(caritas), 곧 사랑과 동일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느님은 거룩하신 분일 뿐 아니라 거룩함 자체가시고, 하느님과 관련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은 무엇보다도 하느님과 닮음에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의 본질과 닮음에 있겠지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느님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은 인간과 세상을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 아드님을 내어주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행적, 삶,

약하고 고통받고 소외되고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심,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십자가 죽음에 당신을 내어놓으심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즉, 요한계 문헌이 종종 말하듯이,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는 사랑을 닮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헌장>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어떠한 신분이나 계층이든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교 생활의 완성과 사랑의 완덕으로 부름받고 있다.”(40항) 교회 안에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등등, 다양한 생활 방식과 직무를 수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은 ‘하나의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곧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이 여정은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여정입니다. “이렇게 크고 많은 구원의 수단을 갖춘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생활 신분이나 처지에서든, 하느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한 성덕[거룩함]에 이르도록 저마다 자기 길에서 주님께 부르심을 받는다.”(교회헌장 11항)

그러니 사는 방식도, 하는 일도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목표, 곧 거룩함을 향해 가고 있으며, 그 길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을 통하여 사랑을 향하여” 가는 길!(교회헌장 44항) 사랑은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목표이자 방법입니다.

P형제님께 (1)



조동원 안토니오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얼마 남지 않은 과학칼럼 연재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 고민하던 중에 두 통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연재를 하면서 한 신자 분께 받은 전자편지(e-mail)이고 다른 하나는 故 최인호(베드로) 선생의 수필집에 나온 편지글(소설가 K형에게)이었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것이라는 말처럼, 어쩌면 칼럼을 읽고 그분이 진지하게 건네신 물음이 그분만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물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께 보내는 답신은 개인적인 편지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보내는 하나의 공개서한이요 ‘글’이겠습니다. 마치 최인호 선생이 ‘소설가 K형에게’ 보낸 편지가 그러하듯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P형제님.

지난 5월 보내주신 메일에 짧은 답장을 보내고, 저의 게으름 탓에 이제야 약속드렸던 두 번째 답장을 드립니다.

형제님의 메일을 받고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은 아직도 생각 중입니다.

신앙과 과학의 관계에 대해 저는 소싯적부터 참 많은 질문을 던졌고 나름 치열하게 고민해 왔습니다. 그것은 모태 신앙인이자 어려서부터 막연하게나마 사제 성소를 느끼던 한 소년이 우연찮게 자연과학을 만나고 미래의 전문과학도로 훈련받으면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겠습니다만,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어떤 섭리의 작용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섭리가 저를 이 서울주보 과학칼럼까지 이끈 것이겠지요.

주보에 칼럼을 연재하기 조금 전에, 신앙과 과학 사

이(?)에서 제가 겪은 오랜 고민과 방향, 정착의 이야기(monologue)를 제법 긴 글로 담아낸 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 글은 어디까지나 모놀로그, 독백인 탓에 많은 사람의 공감대를 끌어내기엔 조금 힘에 부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P형제님의 메일을 받았고, 저는 형제님이 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고 가다듬으며 이것이 독백(monologue)을 넘어 대화(dialogue)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막연한 기대를 이 지면을 빌어 하나의 작은 현실로 빚어 보고자 합니다. 칼럼을 진지하게 봐주시고 허심탄회하게 질문을 보내주심으로써 글의 물꼬를 터주신 형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랜 세월 신앙인으로서 주님께 위로받고 그분께 감사하며 사셨는데, 요즘은 그보다는 오히려 우주의 무한함과 거대함을 떠올리며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지혜서의 말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피조물의 웅대함과 아름다움으로 미루어 보아 그 창조자를 알 수 있다.”(지혜 13,5)

이 말씀은 하나의 귀한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은 바로 피조물의 웅대함과 그 아름다운 질서는 하느님과 ‘경쟁’ 관계에 있거나 심지어 하느님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의 위대하심과 선하심, 아름다우심을 불완전하게나마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는 과학과 신앙의 관계에도 거의 그대로 적용됩니다.



2001년 감독_알랭 레네

영화 '히로시마 내 사랑'

참사의 기억법



구본석 사도요한 신부 | 행당동성당 부주임

‘잊혀진’은 ‘잊히다’라는 피동사에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어지다’가 결합된 이중피동으로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에서 잊힌 무언가를 드러낼 때 보통 ‘잊혀진 무엇’으로 표현합니다. 그만큼 필연적으로 잊히고 야마는 것들을 잊고 싶지 않다는 절박한 마음을 우리는 두 번의 피동을 겹쳐서 드러내고 싶을 만큼 피할 수 없는 혹은 피하고 싶지 않은 운명처럼 여기나 봅니다.

알랭 레네 감독의 영화 <히로시마 내 사랑>은 원자폭탄이 투하된 뒤 12년의 시간이 흐른 히로시마를 배경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평화’라는 제목의 영화 촬영을 위해 히로시마를 찾은 배우 ‘프랑스 여자(엠마누엘 리바 분)’와 일본에서 건축가로 활동 중인 ‘일본 남자(오카다 에이지 분)’가 우연히 만나 관계를 맺는 것으로 영화는 시작됩니다. 둘의 사이가 무르익을 무렵, 재건된 히로시마의 모습 이면에 감추어진 12년 전의 히로시마가 겪은 고통을 엿볼 수 있었다는 프랑스 여자를 향해 일본 남자는 ‘당신은 히로시마를 보지 못했다’고 단호히 말합니다. 더

불어 대재앙이 지나간 곳에 다시금 꽃이 피고 일상이 꾸러지는 상황을 마주하며 프랑스 여자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희망을, 일본 남자는 과거를 향한 망각의 위협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프랑스 여자는 과거 그녀의 고향인 느베르에서 겪었던 어떤 결정적인 사건을 향한 아픈 기억이 점차 희미해지는 체험을 합니다. 절대 잊히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기억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희미해지자 여자는 당황합니다. 그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 사투를 벌이지만, 인간 존재를 움아맨 망각의 힘을 그녀는 이겨내기 어려워합니다. 이런 그녀에게 잊지 않으려는 기억이 잊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은 자신이 기억하려는 것을 왜 기억해야 하는지, 그 기억을 잊지 않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잊히는데 있습니다.

곧 있으면 우리는 10.29 참사 1주기를 맞습니다. 한국 사회가 겪은 여느 참사들과 다를 바 없이 10.29 참사는 많은 이들이 참사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희생자

들을 추모하는 것을 꺼리는 이들에 의해 혹은 게으른 우리 자신의 박약한 의지에 의해 잊히길 강요당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망각이라는 족쇄에 사로잡힌 채 온전한 추모를 위한 기회를 ‘이번에도’ 놓치고 말았습니다.

영화 <히로시마 내 사랑> 속 두 주인공이 지키고픈 기억과 이를 방해하려는 망각 사이에서 사투를 벌이는 모습은 ‘잊혀진’이라는 이중피동의 잘못된 표현이 용인될 수 있을 만큼 절박해 보입니다. 영화는 기억과 망각의 줄다리기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이들, 잊지 않겠다던 의지가 조금씩 희미해지는 처지 앞에 좌절하는 이들과 그 절박함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0.29 참사의 1주기를 맞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망각의 늪에 빠져드는 우리네 실존적 한계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영화 속 일본 남자의 대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아직 2022년 10월 29일의 이태원, 2014년 4월 16일의 진도 앞바다를, 2003년 2월 18일의 대구 지하철 중앙로 역을, 1995년 6월 29일의 삼풍백화점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0월은 '묵주기도 성월'이며 '전교의 달'입니다

묵주기도 성월은 개인과 가정 성화, 인류 구원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묵주기도를 바치는 달로, '묵주기도 성월 기도문'을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10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 <시노드>

교회가 모든 차원에서 경청과 대화를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여 세상의 변방을 향한 성령의 이끄심에 자신을 내어 맡기도록 기도합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36년 10월 7일 김원영 아우구스티노 신부(67세)
 - 1943년 10월 7일 김윤근 요셉 신부(65세)
 - 1950년 10월 5일 양주선(덕환) 안드레아 신부(55세)
 - 1950년 10월 5일 유재옥 프란치스코 신부(52세)
 - 1950년 10월 6일 서기창 프란치스코 신부(50세)
- * 1950년 10월 5일·6일 선종하신 신부님들은 근현대 신앙의 증인들로 한국 전쟁 중 순교한 분들입니다.

서울주보 게재 신청 <http://cc.catholic.or.kr>

묵주기도 성월

-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뵈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이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 기도합니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 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교구청 알림

'슬픔 속 희망찾기' 유가족 온라인 피정 안내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모든 분들
때, 곳: 10월21일~22일, 온라인 줌(12명)
신청방법: 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 참조(선착순 접수)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서울대학교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 / 회비 없음
때, 곳: 10월5일(목) 14시~15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집전: 민경일 신부(미국 알래스카 선교)
문의: 02)727-2407, 2409

2023 가톨릭중등교육자 성지순례

대상: 서울시내 중고등학교 가톨릭 신자 교직원 누구나
때: 10월28일(토) / 곳: 단내성지(이천시)
출발: 가톨릭청소년회관(역삼동)
신청: 구글 온라인신청서
문의: 02)566-5456 지회장 또는 사무실

순교자현양 신심미사 및 하루일정 전국성지순례

문의: 02)2269-0413 서울대학교 순교자현양위원회
1) 순교자현양 신심미사 안내
때: 매일 첫째주(화) 10월3일, 11월7일 오전 10시
곳: 절두산 순교성지
2) 하루일정 전국성지순례
때: 10월15일(일), 10월21일(토), 10월24일(화)
곳: 천안 성거산, 배티, 백곡공소
신청: 10월2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 선착순 접수
회비: 1인 4만5천원 /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경찰사목위원회 선교사 모집

대상: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에 관심 있는 건진성사를 받은 서울대학교 신자(만 65세 이하)
교육기간: 11월29일부터 매주(수) / 16주 과정
곳: 가톨릭회관(명동) / 회비: 10만원
11월21일(화)까지 접수 /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 및 교육과정은 홈페이지 (www.catholicpolice.or.kr) 참조
문의(신청): 02)742-9471, 3 경찰사목위원회 교육센터

환경사목위원회

- 1) 하늘땅물벌의 날
대상: 서울대학교 하늘땅물벌 회원
때, 곳: 10월7일(토) 10시~16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문의(신청): 02)727-2278, 2283 환경사목위원회
- 2) 제48회 가톨릭 에코포럼
대상: 관심있는 일반신자, 신학생, 수도자, 성직자
내용: '기후미식'의의철 전문의, 직업환경의학과 생활습관의학 전공 / 문의: 02)727-2283, 2278 환경사목위원회
때: 10월11일(수) 19시~21시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 회비 없음

'2023 가을' 천주교 서울대학교 문화학교

접수 및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문화학교 홈페이지(<http://culture.catholic.or.kr>) 참조 / 문의: 02)727-2047

한글서예로 성경 말씀 쓰기	10월5일~26일 매주(목) 19시30분~21시
신앙 인문학을 만나대건축 성경	10월5일~11월9일 매주(목) 19시30분~21시
에그리과 성가연주	10월5일~11월9일 매주(목) 19시~21시
수어로 드리는 기도	10월10일~10월31일 매주(화) 19시30분~21시
청년 향주삼덕	10월11일~11월8일 매주(수) 19시30분~21시
서구의 그리스도교 미술	10월17일~11월7일 매주(화) 19시30분~21시
도심 속 번나절 괴정	10월20일(금) 15시~18시

서울대학교 혼인교리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혼인교리 신청' 통해 사전 접수 / 현장 또는 온라인 중 선택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형수를 위한 위령미사'

때, 곳: 11월6일(월), 광탄 나자렛 모원
회비: 1만원 / 신청기한: 10월18일까지
문의(신청): 02)921-5094, 010-3732-5093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김문숙 개인전: 1전시실
지·유·미·혜 '가을을 부르다': 2전시실
성모님의 기도전: 3전시실
전시일정: 10월4일(수)~12일(목)

향심기도 월피정 / 문의: 010-4565-8898

대상: 소개강의 이수자 / 지도: 이승구 신부
곳: 영성센터 B201호(구 계성여고) / 회비: 1만원

직장인	10월8일(일) 13시30분~16시30분
일반인	10월9일(월) 13시30분~16시30분

2023 대림-성탄 묵상곡을 위한 성음악 합창 심포지엄(성음악위원회)

대상: 전국 모든 가톨릭 성가대(분당, 청년, 장년 등)
때: 10월28일(토)
접수 및 등록: 10월4일(수)~20일(금)까지
접수방법: 홈페이지 참조(www.casm.co.kr)
곳: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최양업홀(중림동)
문의: 02)393-2213~5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사무국

인준단체 알림

모임

흔인성소 찾기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 최영민 신부(예수회)

지리산 피아골 피정·성지순례
 때: 지리산피아골 11월10일~11일, 원주·춘천 2
 11월24일~25일 / 문의: 010-3712-8119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
 내용: 고해성사, 미사, 묵주기도, 성체조배 /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사랑이피는기도모임
 때, 곳: 10월7일(토) 15시~18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어농성지 월례 음악 피정
 내용: 찬양미사, 강의 / 찬양, 폐제 기도
 미사: 박상호 신부 / 문의(접수): 031)636-4061
 때: 10월~11월 매월 네번째(토)

역삼동성당 기도회
 때, 곳: 매주(금) 19시~21시40분(미사 19시), B1 경환당
 (주차 가능) / 문의: 010-4667-3792 서 카타리나

10월6일	오태순 신부	10월13일	전제덕 신부
-------	--------	--------	--------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주최, 황성)

성경 완독	10월13일(금)~21일(토), 11월10일(금)~18일(토), 12월8일(금)~16일(토) / 010-3340-0201
카타리나 피정의 집(개인 자체취사)	010-9715-1203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기획 피정(원주교구)
 문의(접수): 043)651-4563 기도학교 사무실

10월20일(금)~22일(일)	전현호 신부(대구대교구)
11월17일(금)~19일(일)	김대우 신부(수원교구)
12월15일(금)~17일(일)	조규만 주교(원주교구)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
 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자연 순례	10월29일~31일, 11월16일~18일, 11월21일~23일, 11월26일~28일, 12월1일~3일, 12월9일~11일, 12월15일~17일
연말연시 특별 피정	12월29일~2024년 1월1일(눈꽃산행)

예수수도회 영성센터(서울) 프로그램
 곳: 전철 1·7호선 온수역 10분 거리 / 010-6890-7223

엄마와 딸(미혼) 피정	10월21일~22일, 11월25일~26일
3545 피정	10월27일~29일, 11월17일~19일
영신수련 2박3일 피정	11월3일~5일, 11월17일~19일
세월의 지혜 영성 피정	11월20일~24일
첫번째 기도학교	10월19일 개강, 매주(목) 10주간
대관(30인 이하)	소규모 피정 및 연수

몸 신학 피정(ICPE 선교회) / 문의: 010-5768-6894
 때: 10월27일(금) 20시~29일(일) 16시 / 선착순 30명
 곳: 마리스타 교육관(합정동) / 대상: 모든 신자

로사리오성월 음악 피정(도미니코 수도회)
 때: 10월6일(금) 19시 / 문의: 010-2034-0042
 곳: 도미니코 수도원(강북구 수유동) / 회비: 1만원
 진행: 김수연 외 2명 / 접수: 0808dominic@naver.com

한국외방선교(해외선교) 수녀회 젊은이 피정
 대상: 해외선교와 수도생활에 관심있는 미혼 여성
 때, 곳: 10월7일(토)~9일(월), 본원(부산)
 문의: 010-9353-1773 김 토마스 수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관심자 모임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세~40세 청년 신자
 때, 곳: 10월8일(일) 14시~17시, 평신도선교사센터(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1번 출구) / 문의: 010-3817-0567

2023년 성모술술 무료 치유대(對)피정
 값없이 먹고 자고 원 없이 기도하자
 때: 매월 둘째주(금~일) 2박3일 12월8일~10일
 ·2024년 1월12일~14일·2월2일~4일
 문의: 010-3209-3955 (문자 접수)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10월16일~19일·11월17일~20일·12월1일
 ~4일,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010-9363-7784 클라라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계절마다 아름다운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10월17일~19일·10월20일~22일·10월24일~26일
 ·10월29일~31일·11월3일~5일·11월11일~13일·11
 월17일~19일·11월23일~25일·11월27일~29일, 연
 말연시(해넘이·해돋이·눈꽃산행) 12월30일~2024년 1
 월2일 /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교육

벨칸토 발성 아카데미(국악성가연구소)
 성가, 가곡 / 초보자 환영
 강사: 강신옥 / 문의: 010-2252-2974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요양보호사 교육원
 요양보호사 자격증 과정 모집 / 문의: 02)3274-4996
 때, 곳: 매월 개강, 서강대학교 김대건관 / 회비: 65만원

새천년복음화학교 영성교육
 주제: 나의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
 말씀: 조성풍 담당 신부 / 문의: 02)753-8765
 때, 곳: 10월15일(일) 13시30분~17시, 가톨릭회관 7층

음악심리 상담사 자격 초급반
 때, 곳: 10월11일~25일 매주(수) 13시30분~16시30분,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 회비: 15만원
 문의: 010-4252-1165 가톨릭성음악클래식타회

기도 교육 8주간
 때, 곳: 10월13일~12월1일 매주
 (금) 10시~13시, 스승예수의제자
 수녀원(주최) 본원(미아리)
 회비: 15만원(대면 교육) / 문의: 010-9742-3842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10주년 이벤트
 연중 다양한 이벤트(홈페이지 참조)
 회비: 일반·첫걸음 2만5천원, 단과 1만원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서울대교구 37기 아버지학교 지원자 모집
 때, 곳: 10월29일~11월26일 매주(일) 13시30분~18
 시30분(5주간), 미아동성당 / 회비: 10만원
 문의(접수): 0505-503-7080(sufather2009@naver.com)

성 이나시오 학교 학생 모집
 1년 동안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함께 공부할 학생
 을 모집합니다 / 선착순 접수, 수업료 없음
 대상: 중졸, 고졸 검정고시 응시 희망자(성별·연령 무관)
 때, 곳: (월~금) 19시~21시40분, 서강대학교
 교무실: 서강대학교 근자기플라자(마포구 백범로 35)
 문의: 02)717-8248 교무실, 010-3311-9593 김지용 선생

사제·수도자 마리아학교 및 온라인 33일 묵상회
 문의(접수): 010-2724-4819 서울마리아 학교

1) 사제·수도자 마리아학교 개설
 내용: 전공자들에 의한 마리아론 공부
 때: 10월16일~12월18일 매주(월) 14시~16시
 곳: 가톨릭회관 311호 / 회비: 10만원

2) 온라인 33일 묵상회 개최
 때: 10월23일~11월27일 매주(월) 20시(6회)
 회비: 3만원(33일책·묵상노트·택배비)

서울대교구 북방선교회 중국어반(35차) 수강생 모집
 곳: 가톨릭회관 202호 / 회비: 7만원(3개월, 교재비 별도)
 인원: 기초반 10명, 초급반 10명, 중·고급반 약간명
 접수: 10월1일~12일(선착순) / 문의: 010-6219-1575
 개강: 10월10일(화) 기초·초급반, 10월5일(목) 중·고급반

(화)	기초반 10시30분~13시	초급반 14시~16시30분
(목)	중급반 10시30분~13시	고급반 14시~16시30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023년 가을 특강
 때, 곳: 10월18일~11월8일 매주(수) 13시30분~15시
 30분(강의), 12시10분(미사) 4회, 프란치스코 교육
 회관(정동) 1층 성당 / 미사 후 간단한 점심 제공
 회비: 4회 3만원 / 문의(접수): 02)6364-2204, 010-3781-2204

10월18일	국악 연주회 '해금으로 드리는 기도'	정겨운· 해금살롱
10월25일	성모 마리아와 다미아노 십자가	김준성 작가
11월1일	현대미술과 찬양 어머니	이동욱 신부
11월8일	현대의 성모 도상	이종한 신부

모집

제10회 가톨릭영화제 현장 자원활동가 모집
 10월12일까지 접수 / 홈페이지(caff.kr) 참조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봉헌회원 모집

대상: 35세~60세 교우로 견진성사 받은 분
 곳: 왜관 수도원 서울 분원(장충동)
 문의: 010-6479-6797 (문자 접수)

명동대성당 가톨릭학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만 18세~만 44세 남녀 가톨릭 신자
 활동: (일) 12시 교중 미사 및 대축일 미사
 오디오션: 10월21일(토) 13시30분, 자유곡 또는 가
 톨릭성가 / 문의: 010-3211-5195 (문자)
 명동성당 홈페이지(PC버전) 단체 모집-이메일 접수

미사

선교문화의날 미사(성령선교수녀회) / 문의: 02)741-4895
 때, 곳: 10월14일 16시, 성령선교수녀회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 문의: 02)929-2977
 때, 곳: 10월6일(금) 14시~16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노고산성지 월례미사

때, 곳: 매월 첫째주(목) 10월5일 오전 11시, 서강대
 학교 성이나시오성당 / 미사 후 성체현시 있습니다
 문의: 02)705-8161 서강대학교 교목처

절두산순교성지 로사리오회 예수성심 신심미사

내용: 연령과 가정을 위한 기도와 미사
 때, 곳: 10월6일(금) 11시30분, 절두산 성지(전철 2
 호선 합정역 7번 출구) / 문의: 02)3142-4434

성골롬반외방선교회 미사·강의

나눔: 김기화 신부(서울대교구)
 주제: 하느님 나라의 형성 / 강야: 10월5일~19일 (목) 14시
 대상: 수도자, 평신도 / 미사: 10월12일(목) 14시
 곳: 골롬반 선교센터 2층(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
 역 4번 출구) / 문의(접수): 010-4100-8807

한국의방선교회 후원회 미사·성서인문학 강좌

대상: 후원회원, 성서인문학 강좌에 관심있는 분
 때, 곳: 10월4일(수) 14시(미사)·15시(강좌), 명동대
 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강사: 김병수 신부
 문의: 02)3673-2525 미사, 02)3673-2528 강좌

첫토요일 신심미사·셀모임(파티마의 세계사도직)

1) 첫토요일 신심미사
 내용: 켈기도, 미사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때, 곳: 10월7일(토) 9시30분~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2) 평화의 모후 청년 셀 모임

대상: 미혼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때, 곳: 매주(금) 19시30분, 가톨릭회관 516호

안내

도미니코 수녀원 영성센터 / 문의: 010-5604-1882
 전문심리치료: 개인(우울·공황·불안·강박·트라우마·
 해리현상 등), 가족 및 부부갈등, 종합심리검사

수도원 재건축을 위한 도움 요청

익산 클라라봉쇄수도원은 보수공사로 유지가
 어려워 재건축이 불가피합니다 도움을 겸손되
 이 청합니다 / 문의: 010-6680-0692
 계좌: 국민 753501-01-480346 (제)천주교유지재단

아퀴나스합창단 제84회 정기연주회

아퀴나스 합창단(담당: 최호영 신부)이 제84회 정
 기연주회로 탄생 150주년 및 서거 80주년을 맞
 는 라흐마니노프의 '저녁기도'를 연주합니다
 때, 곳: 10월4일(목) 19시30분, 성공회 주교좌성당(정동)
 입장권: 전석 2만원 / 문의: 010-2778-2704 총무

제29회 자랑스러운 가톨릭경제인상 추천 안내

추천부문: 자랑스러운 가톨릭경제인상(대상), 모범
 근로자상 후보 / 추천: 추천서 양식(요청시 우송)에
 내용 기재 후 11월1일(수)까지 사무실로 송부
 시상식: 12월9일(토) 15시30분, 명동대성당
 문의: 02)755-7060 서울대교구 가톨릭경제인회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리조트)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천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 인근 성지: 갈매못 순교성지,
 서지골 성지, 청양 다라골 성지 / 문의: 041)934-7758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홈페이지: <https://yonaresort.modoo.at>

유관단체 알림

다솜터 심리상담소

상담: 불안, 우울, 공황장애, 부부, 진로, 영성상담
 담당: 이찬 신부(골롬반회, 심리학박사, 상담심리전
 문가 1급) / 문의: 010-9146-7654

베리타스심리상담센터 / 문의: 02)776-7726

심리상담 및 모래놀이치료

가톨릭회관 501호(명동) / 정서적·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아동, 청소년, 성인, 부부갈등, 우울증, ADHD, 공황장애,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위한 상담을 원하는 분, 심리검사

교육: 미술심리상담사 2급 자격과정: 10월23일~11월
 27일 매주(월) 10시~15시(30시간)
 카페(cafe.daum.net/caritas501) 참조

직원모집

가톨릭출판사 직원 모집

모집분야: 인쇄국 재단 / 문의: 02)6365-1829
 서류: 입사지원서(홈페이지-본사양식)
 자세한 내용은 본사 홈페이지(www.catholicbook.kr) 공지
 사항 반드시 참조 / 이메일(hri1886@catholicbook.kr) 접수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직원(정규직) 모집

분야: 사무직(번역 0명, 행정 사무 등 0명)
 서류: 주교회의 홈페이지-알림마당-알림 참조
 10월20일(금) 14시까지 서류 접수
 이메일(mano@cckc.kr) 문의

대치3(성도탄신)성당 미화원(계약직) 모집

대상: 신자 / 업무: 성당청소 외(주30시간 이상)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방문(우 06187,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90길 19) 및 이메일
 (kc7hcon@naver.com) 접수 / 문의: 02)568-3656 사무실

화곡2동성당 관리인 모집 / 문의: 02)2065-3821

대상: 신자로 시설물 관리, 방호, 영선, 미화 가능한 분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
 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채용시까지 방문·우편(우 07782, 서울시 강서구 곰
 달대로 32길 19) 이메일(hssaint@seoul.catholic.kr) 접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신정3동성당 주방근무자 모집 / 문의: 02)2060-80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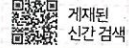
분야: 사제관 주방 근무자 1명(계약직)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
 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 10월31일
 (화)까지 방문·우편(우 08053,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7길 60-10) 및 이메일(leesy2205@seoul.catholic.kr) 접수

응암동성당 사무원 모집

분야: 사무원 1명(계약직, 1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 가능)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로 사무 행정,
 회계업무, PC 업무 가능한 분 / 이메일 문의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
 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0월15일(일)까지 이메일(epata913@seoul.catholic.kr)
 및 우편(우 03470, 서울시 은평구 가좌로 200 응암동
 성당) 접수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서류는 채용 확정 후 안전하게 폐기하겠습니다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2034-0042 이호준 신부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10월7일(토) 14시~9일(월) 13시	본원(경북 왜관)	010-8353-2323 (문자 문의)
성 베네딕도회 요셉 수도원	매주(토)	수도원(남양주 별내)	010-4241-1210 성소 담당
성심수녀회	10월21일(토) 14시~17시	용산구 원효로 19길 49	010-9284-0304
예수의 까리따스 수녀회(서울관구)	10월14일(토) 10시~16시	서울관구 본원(전철 2·4호선 사당역 1번 출구)	010-5830-3217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10월21일(토) 14시30분	수도원(정동)	010-6608-3217
천주교서울교구제선교회	수시	선교회(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게재된
신간 검색



신간

요한복음 신학&영성 1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다 이루어졌다
나다**

이기락 지음 | 오엘북스
152쪽, 176쪽, 168쪽 | 각 1만3천5백원
문의: 010-5336-2647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표지의 책), 《다 이루어졌다》(영광의 책), 《나다》(생명의 책 예수님의 신원) 총 세 권으로 구성된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이다. 신자들이 성경을 부담 없이 접근하면서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주석성경》을 토대로 여러 학자의 학설과 주장을 요약 정리하고 부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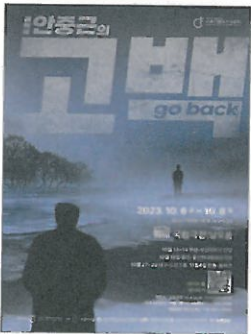


공연

**로시니,
스타바트 마테르**

입장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B석 1만원 / 문의: 1668-1352 예술의전당, 1544-1555 인터파크 티켓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2명 20% 할인

국립합창단의 제195회 정기연주회 <로시니(Rossini), 스타바트 마테르(Stabat Mater)>가 10월 20일(금) 19시 30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작품은 이탈리아 낭만주의 오페라의 거장 로시니의 일생일대 최고 걸작으로, 아름다운 선율과 풍부하고 입체적인 음향이 조화를 이루며 19세기를 대표하는 최고의 명작으로 손꼽힌다.



음악극

안중근의 고백

문의: 010-4283-2586
신청: <https://naver.me/5iplyqRB>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상단 QR 코드 스캔
입장권: S석 3만원, R석 5만원, VIP석 7만원.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2명 50% 할인 (단체 20명 이상 시 - S석 1인 티켓 1만원)

전쟁 중에 죽어가는 독립군들에게 세례를 주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토마스 안중근의 이야기. 사형 선고 후 세례 집전 신부님이셨던 빌렘 신부께 고해성사를 부탁하며 시작되는 음악극 <고백>이 10월 6일(금) 7시 30분, 10월 7일(토)~8일(주일) 15시·19시,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있다.



공모전

**2023년
모여라 가톨릭
하반기 영상 공모전**

때: 10월 1일(주일)~11월 15일(수)
문의: 031)8019-5405(<https://mocatholic.or.kr>)
수원교구 모여라 가톨릭

2023년 모여라 가톨릭 하반기 영상 공모전이 10월 1일(주일)부터 11월 15일(수)까지 진행된다. 교회 안에서 체험한 신앙을 다양한 형식의 영상으로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모여라 가톨릭'에 공유하면 된다. 본당·단체·수도회 및 세례받은 신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한국 순교 성인 대축일 기념
가톨릭페이 머니 지급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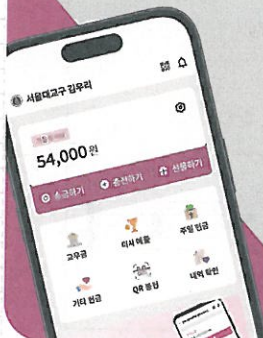


'가톨릭하상' 앱 내 '가톨릭페이' 배너를 클릭하여 우리은행 WON뱅킹 이벤트에 응모해 보세요!

- 혜택1** 가톨릭페이에서 이벤트 기간 내 우리은행 계좌를 충전 계좌로 등록하면 가톨릭페이 머니 5천원 지급 (선착순 10,000명)
- 혜택2** 이벤트 기간 내 우리은행 계좌에서 가톨릭페이로 5천원 이상 충전 시 가톨릭페이 머니 3만원 추가 지급 (1,000명 추첨)

'가톨릭하상' 앱 이벤트 안내

- 1** 기 간 | 9월 18일(월)~10월 22일(주일)
- 2** 대 상 | 우리은행 계좌 이용 교우
- 3** 참여 방법 | ① 이벤트 기간 내 '가톨릭하상' 앱 내 가톨릭페이 배너를 통해 우리WON뱅킹 이벤트 페이지 방문
② 우리WON뱅킹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기' 클릭
- 4** 경품 지급일 | 2023년 11월 13일 이후 개별 문자 통지 예정



가톨릭하상 다운로드

제2300(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 신부 : 류시창(베드로)

부주임신부 : 진현구(베드로)

보좌신부 : 박진호(사도요한)

연령회장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주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아세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평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혼인면담	매월 셋째 주일 오후 3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연령회 미사

일시 : 10월 3일(화) 오전 6시

연령회(선종하신 분들을 위한 미사) 미사를 봉헌하고 미사 후 돌아가신 연령을 위해 연도를 바칩니다.

◎ 10월 3일(화) 오전 10시, 오후 7시 미사는 없습니다.

◎ 사무실 휴무 안내

10월 3일(화)

※ 미사 지향은 사무실에 미리 신청 바랍니다.

◎ 성모신심미사 : 10월 7일(토) 오전 10시

◎ 초등부주일학교 가을 성지순례

일시 : 10월 7일(토)

장소 : 서소문 성지

대상 : 유치부 ~ 초등부 6학년

문의 : 로사 교감

※ 10월 7일(토) 오후 3시 어린이미사는 없습니다.

◎ 새신자 첫고해

일시 : 10월 8일(주일) 오전 9시 / 소성전

◎ 연성회(70대) 정기모임

일시 : 10월 12일(목) 오후 5시 30분 / 201호

문의 : 송경원 베드로 회장 (010-5228-4707)

김무영 요셉 총무 (010-3891-4300)

※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예비자 입교식

일시 : 10월 15일(주일) 오전 11시 교중미사

※ 예비자 인도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바오로시니어대학 야유회

일시 : 10월 20일(금) 오전 7시 30분 성당에서 출발

장소 : 포천 광암이벽기념성당

참석대상 : 시니어대학에 등록된 학생들

문의 : 세실리아 분과장 (010-2035-2581)

◎ 청년배움터바오로 68기 새내기 모집

대상 : 만 40세 이하 청년 누구나

(청년, 냉담자, 예비자)

모집 : 9월 10일(주일)~10월 14일(토)

여는마당 : 10월 15일(주일) 오후 3시 / 304호

문의 : 큰일꾼 루치오 (010-3012-5592)



◎ 구역 성지순례 일정

날짜	구역	장소	문의
10/14(토)	5	은이성지	010-2734-0853
10/14(토)	10	요당리성지	010-3953-1114
10/15(주일)	3	어농성지, 단내 성가정성지	010-2490-8853
10/28(토)	1	솔피, 해미성지	010-9092-1708
10/28(토)	4	풍수원성지	010-3709-5836
10/28(토)	8,9	풍수원성지	010-6407-9145 010-3239-6553
10/28(토)	11	감곡개과성모순례지	010-8926-8267

◎ 추석 연휴로 인하여 후보가 미리 인쇄되었습니다. 감사헌금, 교무금, 주일헌금은 다음 주일 후보에 실겠습니다.

입당	64	봉헌	211, 210, 216	성체	165, 502, 510	파견	421
----	----	----	---------------	----	---------------	----	-----



주님 당신의 자비 기억하소서